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04.(제2호)

서울시민의 범죄 두려움 현황 및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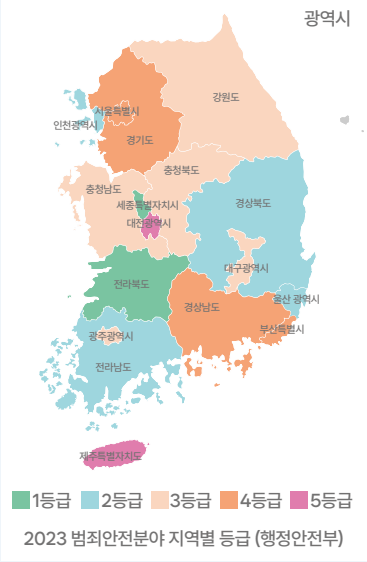
이재경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수탁]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2021)
서울시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2020)
서울시 청년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연구(2020)
[수탁]2018년 성인지 통계: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안전(2018)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2018)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전국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중 서울시는 다른 분야보다 범죄 안전에 있어서 취약성이 드러났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02.19.).[1] 여성가족부의 2022 지역성평등지수에서도 서울시 안전 분야는 타지방자치단체보다 하위 수준에 머물러있다.[2] 두 지수의 범죄 안전 지표에서는 범죄 피해자 수, 범죄 발생률 못지않게 지역구성원이 인지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범죄로부터의 불안이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외부 활동이나 생활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불신감 조장 및 각종 보안장치 설치로 인한 경제비용 부담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최인섭·김지선, 1996; 조일형, 2015)[3], 이웃 간 유대감을 약화시켜 지역사회 신뢰와 범죄예방 정책 효과성을 낮추는 결과를 야기한다(노성훈·조준택, 2014)[4]는 측면에서도 범죄 두려움 완화는 안전정책이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이다.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사회조사」(통계청, 2022) 결과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울시민 중 누가, 왜 범죄 두려움을 높게 인지하는가를 살펴보고, 서울시 범죄 안심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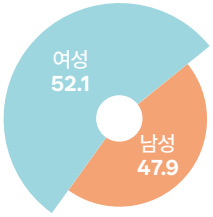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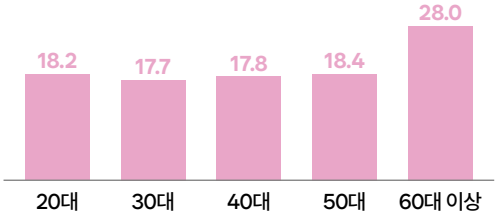
2023 범죄안전분야 지역별 등급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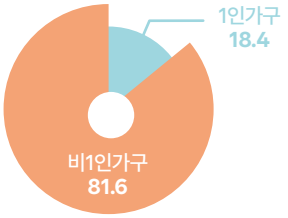
□ 「사회조사」(2022) 개요

▶ 조사 대상: 서울시 만 20세 이상 가구원(총 3,007명 ※가구원가중값 적용 시 8,169,833명)
※ 전국 사회조사에서 행정구역 시도코드 중 서울지역 추출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 조사 기간: 2022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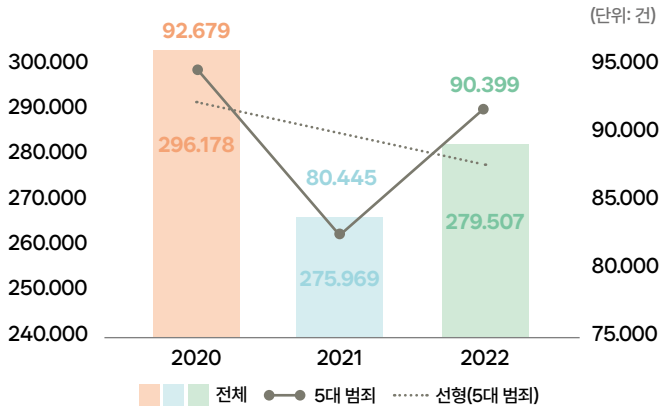


(단위: %)

서울시 범죄 발생 건수 및 범죄 안전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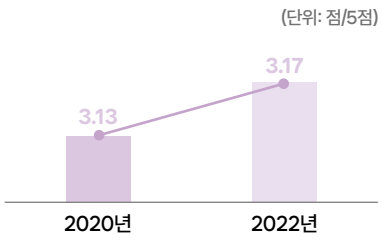
◯ 서울시 범죄 발생 건수 감소 추세에도 높아진 범죄 불안 정도

- 2020년 대비 2022년 서울시 범죄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전체 범죄: 2020년 296,178건 → 2022년 279,507건, 5대 범죄: 2020년 92,679건 → 2022년 90,339건
- 동일기간 범죄 발생건수의 감소 추세에도 서울시민의 범죄 불안 정도는 높아짐
  · 2020년, 2022년 「사회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범죄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울지역 분석 결과, 2020년 3.13점에서 2022년 3.17점으로 높아짐. 즉, 우리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짐



| 그림 1 | 2020년 이후 서울시 범죄 발생 건수

출처: 1) 「경찰청범죄통계」(경찰청)
2) 「치안통계」(서울지방경찰청)



| 그림 2 | 연도별 범죄 안전 인식

주: 1=매우 안전하다 ~ 5=매우 안전하지 않다
출처: 2020년, 2022년 「사회조사」 서울지역 재분석

누가, 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게 인지하는가?

◯ 일상 범죄 두려움에 대한 개념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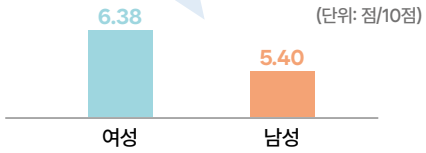
- 범죄 두려움은 "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한 환경에서 물리적 위협으로 인지되는 위험 또는 불안에 대한 감정적 반응"(Garofalo, 1981: 840; 이재완, 2023: 145)[5]으로 정의됨
- 범죄 두려움 중 일상 범죄 두려움은 특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막연하게 느끼는 감정적 수준의 불안감을 의미함. 이것은 특정 범죄유형을 염두에 두고 시간, 공간, 사회적 맥락에서 범죄 발생 위험성에 기초하여 피해위험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범죄 두려움과는 구별됨(노성훈·조준택, 2014: 446; 노성호·신소라, 2020: 71-72)[6]
- 여기서는 2022년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를 살펴봄. 일상 범죄 두려움은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과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합으로 정의함[7]

[일상 범죄 두려움] 측정 변수
-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도: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 각 분야에서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1=매우 안전하다~5=매우 안전하지 않다)
- 야간보행 안전: 귀하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1=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4=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 집단별 특성에 따른 일상 범죄 두려움: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

여성, 남성보다 범죄 두려움 정도가 높음

- 성별에 따라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6.38점)이 남성(5.40점)보다 일상 범죄 두려움을 높게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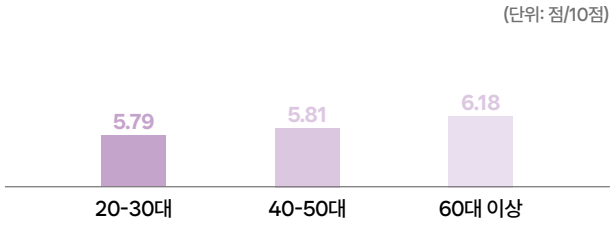


| 그림 3 | 성별에 따른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

주: 1=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10=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출처: 2022년 「사회조사」 서울지역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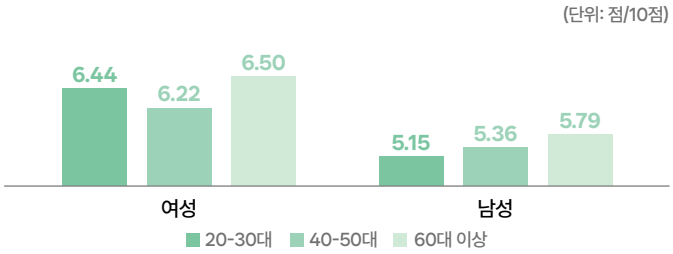
60대 이상 여성, 20-30대 여성 순으로 일상 범죄 두려움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6.18점)에서 범죄 두려움 정도가 가장 높았음
- 모든 연령 구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가 6.50점으로 가장 높았고, 20-30대 여성(6.44점)이 그 다음으로 확인됨
- 일상 범죄 두려움은 청년 세대보다 노인 세대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노인의 일상 범죄 두려움 증가 원인은 은퇴 후 사회경제적 지위의 약화로 지역사회 유대관계가 느슨해지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약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이 증가하기 때문임(박외병, 2020)[8]
- 이에 범죄 두려움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청년 여성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림 4 | 연령별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

주: 1=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10=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출처: 2022년 「사회조사」 서울지역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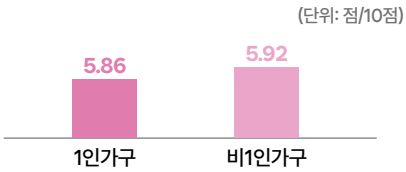


| 그림 5 | 성별 및 연령별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

주: 1=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10=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출처: 2022년 「사회조사」 서울지역 재분석

여성 1인가구,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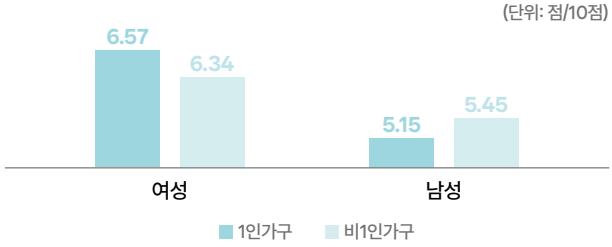
- 가구형태별 일상 범죄 두려움을 살펴보면 비1인가구(5.92점)가 1인가구(5.86점)보다 두려움 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됨. 비1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일상 범죄 두려움을 높게 인지하는 원인은 첫째, 원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던 사람이 독립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둘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어서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조현성·김상학, 2018)[9]



| 그림 6 | 가구형태별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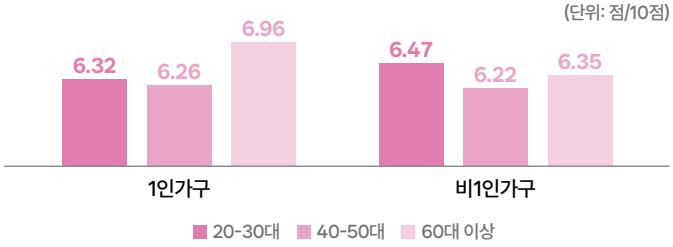
주: 1=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10=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출처: 2022년 「사회조사」 서울지역 재분석

- 다만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를 성별로 세분화했을 때 여성 1인가구의 범죄 두려움(6.57점)이 다른 집단보다 매우 높음. 이것은 전체 비1인가구 일상 범죄 두려움(5.92점)보다 높은 수치임
- 여성은 1인가구 여부에 상관없이 범죄 두려움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여성 1인가구: 6.57점, 여성 비1인가구: 6.34점). 가구형태 및 연령별 여성의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 1인가구(6.96점), 20-30대 비1인가구(6.47점) 순으로 범죄 두려움 정도가 높았음. 이를 통해 범죄 두려움 완화를 위해서는 가구형태와 더불어 연령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림 7 | 성별 및 연령별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

주: 1=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10=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출처: 2022년 「사회조사」 서울지역 재분석



| 그림 8 | 여성 가구형태 및 연령별 일상 범죄 두려움 정도

주: 1=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10=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출처: 2022년 「사회조사」 서울지역 재분석

서울시민의 범죄 두려움 영향 요인

◯ 개요

- 일상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공공질서 준수, 환경문제), 개인의 삶의 질(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전반적인 일상 스트레스, 자살 충동 여부), 사회경제적 조건(거처 종류, 취업 여부),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가구형태) 등을 포괄적으로 탐색함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 공공질서 준수 수준: 차례지키기, 거리 환경 유지, 보행 질서, 운전자 교통질서, 금연 구역 준수, 공공장소 정숙, 교통 약자 보호석 지키기(1=아주 잘 지킨다~5=전혀 지키지 않는다)
- 환경문제: 귀하는 환경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기후변화, 유해 화학 물질, 방사능, 미세 먼지, 농약, 화학비료, 수돗물(1=전혀 불안하지 않다~5=매우 불안하다)
- 5년 후 우리사회 안전에 대한 기대: 5년 후, 우리 사회의 안전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1=매우 안전해질 것이다~5=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개인 삶의 질]
-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1=매우 만족한다~5=매우 불만족한다)
- 주관적인 건강상태: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1=매우 좋다~5=매우 나쁘다)
- 일상생활 스트레스: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전반적인 일상생활(1=매우 많이 느꼈다~4= 전혀 느끼지 않았다)
- 자살 충동 여부: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죽고싶다는 생각에 한번이라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1=있다, 0=없다)

[사회경제적 조건]
- 거처 종류(아파트 거주=1), 취업 여부(취업=1)

[인구학적 특성]
- 성별(여성=1), 연령(연속변수), 가구형태(1인가구=1)

○ 분석 결과

-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공공질서 준수, 환경문제, 사회 안전에 대한 기대), 개인의 삶의 질(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살 충동 여부), 사회경제적 조건(거처 종류, 취업 여부)과 범죄 두려움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함

· 사회구성원의 공공질서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환경문제에 불안을 높게 인식할수록, 5년 후 우리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기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일상 범죄 두려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개인의 삶의 질 영역에서는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범죄 두려움이 높아짐

·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하는 경우보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가 아닌 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경우, 1인가구가 아닌 경우 범죄 두려움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성별 집단별로는 각 요인들이 범죄 두려움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도 살펴봄. 그 결과 여성은 5년 후 사회 안전에 대한 기대,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자살 충동 여부가, 남성은 주관적인 건강상태, 취업 여부가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됨

| 표 1 |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독립변수		전체	여성	남성
		Exp(B)	Exp(B)	Exp(B)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공공질서 준수 수준	0.306***	0.335***	0.267***
	환경문제 불안 수준	0.423***	0.413***	0.412***
	5년 후 사회안전에 대한 기대	0.164***	0.246***	0.069***
개인 삶의 질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0.107***	0.172***	0.044***
	주관적인 건강 상태	0.117***	0.083***	0.182***
	일상생활 스트레스	-0.075***	0.000	-0.133***
	자살 충동 여부 (1=자살 충동 있음)	0.149***	0.249***	0.015***
사회 경제적 조건	거처 종류(1=아파트)	-0.081***	-0.114***	-0.059***
	취업 여부(1=취업)	-0.069***	-0.053***	-0.159***
인구학적 특성 (통제)	만 연령	0.003***	-0.003***	0.009***
	가구형태(1=1인가구)	-0.061***	0.139***	-0.246***
	성별(1=여성)	0.834***	-	-
수정된 R 제곱 값		0.241	0.176	0.164

주: *p<0.05, **p<0.01, ***p<0.001
출처: 2022년「사회조사」서울지역 재분석

서울시 범죄 안심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 서울시 범죄 안심 대응 정책 현황

- 서울시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옴. 서울 안심이 앱 운영,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등 범죄 취약계층 귀가 지원을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안전도어 지킴이, 1인가구 안심 홈세트 등 주거 침입 예방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임. 해당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여성 또는 1인가구임

- 그 외에도 모든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고화질 CCTV 확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

| 표 2 | 서울시 범죄 안심 정책 운영 현황

사업명	서울 안심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안심장비 지원사업
사업 목적	1인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시간 스마트 안심체계 구축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	안전취약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전담경비원 '안심마을보안관' 배치·운영을 통해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안전한 환경 조성	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스토킹, 주거침입범죄 등을 예방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대상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 누구나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16개소)	서울시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단, 지역특성,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 고려하여 자치구별 자체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사업 내용	귀가모니터링, 긴급신고, 안심귀가택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예약 등	귀가동행 및 순찰지원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순찰	범죄예방 안전장치·물품 설치 및 제공 (안심홈세트, 안심비상벨,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등)

- 범죄 안심 정책의 강화로 인하여 서울시민의 야간보행 두려움 정도는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확인됨(야간보행 두려움 정도- 2020년: 여성 2.48점, 남성 1.97점 → 2022년: 여성 2.44점, 남성 1.94점). 다만 지난해 발생한 신림역 인근('23. 7. 21.), 다중운집 번화가, 관악산 둘레길('23. 8. 17.)에서 이유 없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범죄 피해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안심 정책 수립 시 다음의 사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여성 1인가구 중심에서 모든 여성으로 정책 대상 범위 확대 필요

- 서울시민 중 범죄 두려움에 취약한 집단은 여성 1인가구(6.57점)이지만 비1인가구 여성(6.34점)의 범죄 두려움도 높은 수준임. 특히 20-30대 비1인가구의 범죄 두려움(6.47점)이 20-30대 1인가구(6.32점)보다 높음. 이에 안심장비 지원사업 등 1인가구 중심의 범죄 안심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범죄 두려움을 높게 인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연령대별 맞춤형 범죄 안심 정책 마련 필요

- 청년세대와 더불어 60대 이상 연령층을 겨냥한 범죄 안심 정책 전략 마련이 필요함. 「사회조사」 분석 결과, 60대 여성, 20-30대 여성 순으로 범죄 두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남. 이것은 청년 여성과 함께 60대 이상 여성의 범죄 두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줌.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범죄 두려움에 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살 충동, 주관적인 건강상태, 취업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이를 고려했을 때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범죄 두려움을 높게 인식하는 이유는 은퇴 이후 취약해진 신체건강 및 고립으로 인한 정신건강 약화로 해석할 수 있음. 60대 이상의 범죄 두려움 완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서울시 범죄 안심 정책 이용자 현황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연령대별 정책 접근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그와 더불어 60대 이상 서울시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강화를 통한 범죄 두려움 완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주택 유형에 따른 서울시 범죄 안심 정책 우선순위 고려

- 주택 유형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비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보다 범죄 두려움을 높게 인지함. 특히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자에게서 일상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난 기존의 선행연구에 기초했을 때(박준휘 외, 2017)[10] 안심귀가지원사업 또는 안심마을보안관 배치를 1인가구 밀집지역 뿐 아니라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우선 배치하거나, 안심장비 지원사업에서도 주거 형태를 고려한 지원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02.19.)에 따르면, 서울시는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병 분야 안전은 2등급, 화재 분야는 3등급, 마지막으로 범죄 분야는 4등급으로 다른 분야보다 안전지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02.19.).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2) 2021년 지역성평등지수 결과 서울시 안전분야 점수는 70.3점으로 17개 행정구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https://gsis.kwdi.re.kr/kr/stat2/NewStatList.html)

3) 최인섭·김지선(1996).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일형(2015).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4(3): 1-28

4) 노성훈·조준택(2014). "지역사회의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형사정책연구」 25(4): 455-478

5) Garofalo, J.(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 Crim. L. & Criminology 72(2): 839-859
이재완(2023). "범죄위험 인식과 CPTED의 효과성 인식: 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1): 143-166

6) 노성호·신소라(2020). "범죄 두려움의 개념정의와 척도에 대한 검토".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67-84

7) 범죄 안전 인식은 5점 척도, 야간보행 안전은 4점 척도를 사용함. 이에 각 항목을 10점으로 전환한 후 합하여 일상 범죄 두려움(10점)으로 재정의함

8) 박외병(2020).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82: 85-108

9) 조현성·김상학(2018). "1인가구의 범죄피해-두려움 패러독스". 「대한범죄학회」 12(1): 19-37

10) 박준휘·김한균·유진·한민경·이성규·최지선·윤상연·강용길·박재풍·이춘삼·김도형·박준승·조윤오·박형아(2017).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Ⅱ): 1 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